

야구인 55% “낙후된 대구, 야구하기 가장 꺼려진다”

이슈&포커스 | 야구장 불편한 진실

상. 감독·선수 40인 설문 “가장 꺼리는 구장은?”

한국프로야구는 올해로 출범 31년째를 맞았다. 지난해 680만 관객 돌파에 이어 올 시즌에는 700만 관객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프로야구는 그야말로 ‘국민스포츠’로 뿌리를 내렸다. 그러나 인프라는 열악하기 그지없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의 시설물은 30년 전에 비해 별반 나아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는 신축구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선 언제 최신식구장이 들어설지 기약이 없다. 한꺼번에 개선되지 않는다면 급한 것부터 고쳐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불편하고, 어떤 시설부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까. 스포츠동아 이슈&포커스는 프로야구가 펼쳐지는 야구장의 ‘불편한 진실’에 관한 의식조사를 2회에 걸쳐 다룬다. 이번 주에는 현장의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다음 주에는 팬들의 의식조사 결과를 신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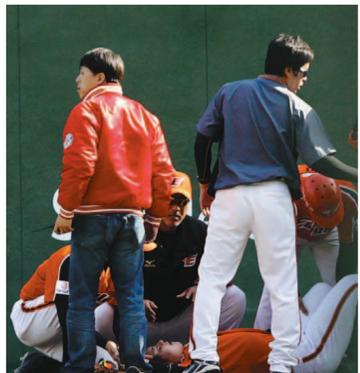
“원정 라커룸 유명무실...실 곳조차 없다”

광주 17표·대전 12표·청주 8표 뒤이어 사직 제천 문학 선호도 1위...29명 선택

야구장 그라운드 정비·펜스 개선 등 절실

▲ 프로야구선수들은 대구구장(사진)을 가장 꺼리는 야구장으로 꼽았다. 인조잔디의 그라운드뿐만 아니라 원정팀 라커룸 등 제반 시설이 가장 낙후했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전구장도 선수들이 기피하는 구장으로 나타났다.

▼ 한화 정원석이 15일 문학 SK전에서 수비를 하다 외야 펜스에 부딪쳐 크게 다쳤다. 국내 야구장 중 프로야구선수들이 가장 선호하는 문학구장조차도 딱딱한 외야 펜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분	설문참가자
삼성(5명)	류종일 감독, 김재걸 코치, 박석민, 차우찬, 최형우
SK(5명)	이만수 감독, 조용현 코치, 박재상, 박희수, 윤희상
롯데(5명)	양승호 감독, 박계원 코치, 김사을, 문규현, 송승준
KIA(5명)	선동열 감독, 이건열 코치, 김선빈, 나지완, 차일목
두산(5명)	김진욱 감독, 고마키 코치, 니퍼트, 손시현, 정수빈
LG(5명)	김기태 감독, 조계형 코치, 이병규(9번), 정성훈, 최동수
한화(5명)	한대화 감독, 정민철 코치, 강동우, 김태균, 류현진
넥센(5명)	김시진 감독, 김동수 코치, 김수경, 송지민, 허도환

●가장 꺼리는 구장? 대구구장!

설문은 8개 구단 감독과 코치 1명씩, 선수 3명씩 등 팀별로 5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사람이 2~3개의 복수응답을 하기도 했다. ‘가장 꺼리는 구장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대구구장이 22표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광주구장(17표)이 뒤를 이었다. 대전(12표)과 청주(8표) 등 한화의 홈구장도 선수들이 야구하기를 꺼리는 구장으로 나타났다. 역시 낙후된 야구장들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목동(4표)과 잠실, 사직(이상 2표)을 답변한 이들도 있었으며 SK의 홈구장인 문학을 싫어하는 답변자는 없었다.

대구, 광주, 대전을 꼽은 이들은 ‘낙후된 시설로 선수들이 마땅히 설 공간조차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롯데 양승호 감독은 “대구와 광주구장은 원정 라커룸이 없거나, 10명이 들어가기도 벅겁다”고 말했다고, 193cm의 장신인 SK 윤희상은 “광주와 대구는 천장도 낮아 이동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두산 외국인 투수 터스티 니퍼트는 “청주와 대전 같은 야구장은 고등학교 때도 사용해본 적이 없는 좁은 구장이다”고 설명했다. 이들 구장은 지난해까지 모두 인조잔디 구장이어서 선수들은 부상을 걱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올 시즌을 앞두고 광주구장은 천연잔디로 바뀌었고, 대전구장은 리모델링을 통해 5월부터 사용될 예정이지만 크게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잠실은 그라운드 등

야구장 시설 중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은?(복수응답 허용)



가장 선호하는 구장은?(복수응답 허용)



가장 꺼리는 구장은?(복수응답 허용)



에서는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역시 원정팀의 경우 복도에 가방을 두고 옷을 갈아입어야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라는 지적이다.

●가장 선호하는 구장? 문학구장!

‘가장 선호하는 구장은?’이라는 질문에 무려 29명이 문학구장을 꼽았다. 문학은 2002년 개장한 구장으로 국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어졌다. 그러나 문학도 국내 구장 중에서 그나마 낡다는 것이지, 불편한 점들은 여전히 많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우선 과거에는 원정팀에도 라커룸의 공간이 넓게 제공됐지만, 이곳을 SK 2군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활용하면서 1군 경기시 원정팀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줄었다. 또 최근 한화 정원석이 수비를 하다 펜스에 부딪쳐 중상을 입은 정도로 외야 펜스 등은 타구장에 비해 나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문학 다음으로는 사직을 선호했다. 그라운드도

천연잔디로 바뀌었고, 넓고 편리한 원정팀 라커룸이 후한 평가를 얻었다. 이어 잠실이 12표를 받았는데, 협소한 원정팀 라커룸을 제외하면 시야가 탁 트이는 느낌이 드는 등 다른 시설들은 지방구장들에 비해 낫다는 것이 이유였다. 문학, 사직, 잠실을 제외한 다른 구장은 단 1표도 얻지 못했다.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시설은?

설문조사에 응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부터 꺼냈다. 복수응답을 받은 결과 역시 원정 라커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무려 24표나 나왔다. 삼성 박석민은 “원정팀을 가면 선수들이 훈련 후 버스에서 옷을 갈아입는 실정이다. 작년 아시아시리즈 때 대만에 가봤는데 야구실력은 우리가 한 수 위라지만, 시설 면에선 대만이 두세 수 위였다”며 “올해 아시아시리즈를 원정팀 라커룸

이 그나마 팬들은 사직구장에서 하나씩 다행이지만 옷도 갈아입기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든 잠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면 부끄러울 뻔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박석민은 “메이저리그나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은 원정 3연전 때 라커룸에 장비를 비롯해 짐을 모두 두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샤워한 다음에 비누와 타월조차도 가방 안에 챙겨서 버스를 타야 하는 지경이다”며 아쉬워했다.

원정 라커룸 개선에 이어 그라운드 정비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인조잔디 교체와 함께 그라운드 흙의 교체를 원했다. 삼성 김재걸 코치는 “2008년 WBC 때 에너하임구장에 썼는데 스파이크를 신고 달려도 흙이 크게 파이지 않았다. 우리나라 구장들은 힘만 주면 땅이 푹푹 파진다”며 “우리는 타자나 수비수나 주자나 불안하니까 매순간 땅부터 고르는 게 일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삼성 류종일 감독 역시 “이제는 고위층들뿐 아니라 운동장 관리인들도 메이저리그 견학을 가서 어떻게 그라운드를 관리하는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 정민철 코치도 “투수가 등판했을 때 땅이 푸석푸석해지는 등 제대로 단지기 어려운 곳이 많다”고 설명했다. 딱딱한 외야 펜스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신인 시절 펜스에 부딪쳐 크게 다쳤던 한화 강동우는 “외야수로서 펜스는 정말 무서운 정도다. 쿠션이 20cm 정도는 돼야 하는데 거의 모든 구장이 5cm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LG 이병규는 “돈 때문에 외야 펜스를 교체하지 못하는 건 너무 슬픈 현실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이밖에 선봉기조차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턱아웃, 팬의 이동경로와 분리되지 않은 선수단 이동경로, 차량 파손까지 발생하는 주차장 문제 등도 시급히 개선할 점으로 꼽혔다. 이재균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강경윤 기자 mikkang@donga.com 트위터 @mikkang



▲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것이 바로 속눈썹과 눈썹이다.

3일이면 눈썹이 자란다고?

지금 전화주시면 펩티레쉬 7일 무료체험 기회를 드립니다!

모근부터 건강하고 튼튼하게 영양분을 듬뿍듬뿍 골고루 뿌리끝까지

긴 속눈썹은 여자의 로망

많은 여성들은 보다 길고 풍성해 보이는 속눈썹을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마스크라든 바르거나 일회용 속눈썹을 붙이기도 하고, 고대기로 말아 올리거나 심지어는 파마까지도 한다. 최근에는 인조 속눈썹을 붙이는 속눈썹 연장술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속눈썹을 돋보이게 하는 이런 노력들이 눈과 주위 피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심하면 속눈썹이 빠지는 탈모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출시된 속눈썹 풍부 영양제 펩티레쉬는 펩타이드성분으로 속눈썹을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가꾸어 준다고 한다.

눈썹도 '엷지' 있게!

근래에 들어서는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까지도 외모를 가꾸고 관리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나 풍성한 속눈썹과 커다란 눈망울을 자랑 것이다. 속눈썹은 눈매를 더욱 뚜렷하고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런 시기에 속눈썹이 얇고 짧아서 잘 빠지는분, 부러나 마스크라든 사용해도 켈링이 잘 안되는분들을 위해 신물질 펩타이드로 만든 속눈썹 풍부 영양제 제품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속눈썹 풍부 영양제 '펩티레쉬'는 원래 눈매장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안약을 투여하던 중 속눈썹이 몰라보게 길고 풍성해진걸 발견하고 이후 비의약계열의 천연 펩타이드 성분을 연구, 개발하여 탄생하게 되었다. 펩티레쉬의 큰 특징중 하나는 모낭을 직접 자극함으로써 세포의 활성화와 풍부한 영양을 공급해줘 모낭만 남아 있던 반응을 눈썹을 되살려 준다. 이런 현상이 가능한 것은 펩타이드란 성분 때문인데, 속눈썹의 탄력성과 지구력을 보강해줘 모낭만 남아있다면 얼마든지 퇴화한 속눈썹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속눈썹 위아래로 아이러인 그리듯이 간단히 바르지만 하면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바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연물질 성분으로 구성되어 FDA 인체무해성 원료기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므로 믿고 사용할 수 있다. **무료상담 1588-2628**



속눈썹을 가꿔주는 생활 속의 TIP!

속눈썹은 먼지를 걸러내 눈 속으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기능적인 부분 외에도 눈은 밝고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잘 가꾸고 꾸미면 얼굴을 돋보이게 해주는 속눈썹,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 먼저 청결이 우선이다. 림, 아이 전용 리무버와 함께 꼼꼼하게 세안 후 메이크업 잔여물을 남김없이 지워줘야 한다. 남아있는 잔여물이 속눈썹을 상하게 하기 때문이다. 블랙푸드 속눈썹에도 도움이 된다.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블랙푸드(검은콩, 검은깨, 마역, 다시마)가 속눈썹 탈모를 방지해 준다.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속눈썹 모양을 활짝 열어주고 고농축 영양액이 들어가는 영양제를 밤10시~새벽2시에 속눈썹 뿌리부분에 도포하고 자면 자친 속눈썹이 밤사이 더 길고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7일 무료체험

바르지만 해도 속눈썹을 풍성하고 볼륨감 있게 가꾸어 주는 눈썹마술사 '펩티레쉬' 7일 무료체험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속눈썹 풍부 영양제 '펩티레쉬'가 선사하는 마술같은 변화! 이제 직접 체험해 보세요!

무료상담 1588-2628